

XV. 부 록

APPENDIX

2. 행정동별관할구역현황

Area in Charge by Administrative Dong

동명 Dong	소재지 Location	면적 (km ²) Area	통 Tong	반 Ban	관할구역 Area in Charge	전화번호 Telephone	구청과의거리(km) Distance From Gu office
구 Gu	대청1가 1	2.82	172	736		469-0281	
중앙동 Jungang-Dong	중앙2가 19	0.60	13	48	중앙 1, 2, 3, 4, 5, 6, 7가 대창동 1가	600-4901	1.1
동광동 Donggwang-Dong	중앙4가 40	0.17	14	58	동광동 1, 2, 3, 4, 5가	600-4902	0.6
대청동 Daechong-Dong	대청2가 2	0.35	21	102	대청동 1, 2, 3, 4가	600-4903	0.4
보수동 Bosu-Dong	보수1가 95	0.42	34	146	보수동 1가, 2가, 3가	600-4904	1.0
부평동 Bupyeong-Dong	부평1가 30	0.21	22	94	부평동 1, 2, 3, 4가	600-4906	1.0
광복동 Gwangbok-Dong	신창1가 9	0.21	12	49	광복동 1, 2, 3가 신창동 1, 2, 3, 4가 창선동 1, 2가	600-4907	1.0
남포동 Nampo-Dong	남포4가 32-2	0.23	11	45	남포동 1, 2, 3, 4, 5, 6가	600-4908	1.7
영주1동 Yeongju1-Dong	영주 673-1	0.29	20	81	영주동 1-11, 14, 17, 18, 20-41, 43-61, 62의 1, 62의 2, 467-525, 526의 1, 534의 1,9,11,15, 537-745, 산의 1일부, 대창동 2가	600-4909	0.7
영주2동 Yeongju2-Dong	영주 278	0.34	25	113	영주동 62의 3, 63-466, 526의 2, 527, 533-536 (534의 1, 9, 11, 15 제외) 산의 1 일부	600-4910	0.9

자료: 총무과

Source: General Affairs Department

3. 역 대 구 청 장 명 단

Name of Director(Past, present)

대 순 Order	성 명 Name	취 임 년 월 일 First date on duty	이 임 년 월 일 Date off duty	비 고 Remarks
1	백 기 형	1957. 1. 1	1959. 4. 28	
2	천 완 의	1959. 4. 28	1960. 5. 27	
3	노 재 룬	1960. 5. 27	1960. 6. 18	
4	김 순 특	1960. 6. 18	1960. 10. 6	
5	김 태 준	1960. 10. 6	1961. 5. 13	
6	김 순 특	1961. 5. 13	1961. 6. 26	
7	곽 재 상	1961. 7. 20	1962. 7. 14	
8	김 태 옥	1962. 7. 17	1963. 12. 31	
9	방 기 원	1964. 1. 1	1964. 9. 16	서 리
10	배 석 권	1964. 9. 28	1965. 8. 14	Acting(directors)administrator
11	유 호 필	1965. 8. 14	1966. 12. 3	
12	김 태 조	1966. 12. 13	1966. 12. 31	겸 무
13	강 태 홍	1967. 1. 1	1968. 5. 1	Concurrent service
	김 태 조	1968. 5. 1	1968. 5. 31	직무대리
14	김 태 조	1968. 6. 1	1970. 3. 3	Acting
15	배 석 권	1970. 3. 3	1971. 8. 20	
16	김 태 옥	1971. 8. 21	1972. 6. 5	
17	김 한 준	1972. 6. 5	1973. 12. 31	
18	옥 성 선	1973. 12. 31	1975. 7. 5	
19	배 상 한	1975. 7. 5	1976. 4. 8	
	김 만 연	1976. 6. 1	1976. 6. 22	직무대리
20	한 청 수	1976. 6. 23	1978. 2. 15	Acting
21	권 택 훈	1978. 2. 15	1978. 8. 1	
22	정 태 영	1978. 8. 2	1980. 11. 28	
23	남 종 섭	1980. 11. 29	1982. 9. 17	
24	김 만 연	1982. 9. 18	1985. 3. 11	
25	정 남 석	1985. 3. 12	1988. 6. 15	
26	정 철 진	1988. 6. 16	1989. 12. 27	
27	차 용 규	1989. 12. 28	1991. 1. 10	
28	박 춘 근	1991. 1. 10	1993. 1. 17	
29	양 종 수	1993. 1. 18	1994. 2. 14	
30	송 인 명	1994. 2. 15	1995. 3. 30	
	손 병 규	1995. 3. 31	1995. 6. 30	직무대리
31	변 종 길	1995. 7. 1	1998. 6. 30	Acting
32	이 인 준	1998. 7. 1	2002. 6. 30	
33	이 인 준	2002. 7. 2	2006. 6. 30	
34	이 인 준	2006. 7. 1	2007. 11. 15	
	이 진 복	2007. 11. 16	2007. 12. 19	권한대행
35	김 은 숙	2007. 12. 20	2010. 6. 30	
36	김 은 숙	2010. 7. 1	현 재	

자료 : 총무과

Source : General Affairs Department

4. 각급 학교 일람표

Table of Schools

○ 유치원 (Kindergarten)

원 명 Name of kindergarten	소재지 Location	전화번호 Telephone	설립연월일 Day of Establishment	설립별 By Establishment
부산명성유치원	영주2동 284-3	469-9362	1982. 6. 1	사립
영주중앙유치원	영주2동 277-4	469-0300	1984. 12. 13	사립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학교명 Name of School	소재지 Location	전화번호 Telephone	설립연월일 Day of Establishment	설립별 By Establishment
광일초등학교	대청동4가 95	603-5000	1998. 9. 1	공립
남성초등학교	대청동1가 10	469-7966	1962. 10. 21	사립
보수초등학교	보수동1가 50	255-7975	1953. 7. 9	공립
봉래초등학교	영주1동 580	463-4972	1909. 6. 4	공립
부산삼육초등학교	영주1동 63-31	442-3691	1967. 5. 11	사립

○ 중학교 (Middle School)

학교명 Name of School	소재지 Location	전화번호 Telephone	설립연월일 Day of Establishment	설립별 By Establishment
덕원중학교	대청동4가 10	466-2371	1953. 9. 18	사립

○ 고등학교 (High School)

학교명 Name of School	소재지 Location	전화번호 Telephone	설립연월일 Day of Establishment	설립별 By Establishment
남성여자고등학교	대청동1가 10	461-0513	1941. 5. 1	사립
혜광고등학교	보수동1가 32	253-7709	1955. 3. 29	사립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대청동4가 10	463-4565	1953. 9. 18	사립
동주여자고등학교	광복동3가 3	246-4641	1949. 4. 26	사립

5. 동명유래 Origin of Dong Name

1. 중앙동(中央洞)

영선산(瀛仙山)의 아래 골짜기로 두 개의 낮은 언덕배기 산봉우리가 해면(海面)에 돌출해 있었다. 이 두 개의 봉우리는 용두산의 좌청룡등(左靑龍嶺)에 해당한다고 일컬었다. 두 봉우리의 사이에는 논(畓)이 있어 여기를 논치라 불렀으며 산 아래의 좌우(左右)에는 논치 어장(漁場)이 있었다. 이 논치 어장이 현재의 중부경찰서 남쪽으로 중앙동 지역 내의 고유한 지명으로 알려진 유일한 것이다.

개항 후 중앙동 거리 바로 밑이 바닷가여서 당시만 하더라도 시가지의 발전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당시 일본조계(日本租界)는 11만 평이라 하지만 그 중앙에 용두산이 자리하여 가용면적은 7만평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변을 매축하여 시가지를 형성할 목적으로 1902년에 부산매축주식회사(釜山埋築株式會社)가 설치되어 이를 중심으로 북빈매축공사(北濱埋築工事)가 추진되었다. 이 매축지역에 붙여진 이름이 이른바 새 마당으로 새로 생긴 넓은 땅이란 뜻이다. 행정적으로는 여기에 좌등정(左藤町) 대창정(大倉町) 고도정(高島町) 경부정(京釜町) 등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이중 좌등정과 고도정은 구한국(舊韓國)정부에서 매축 허가를 내어준 일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며 경부정은 경부선 철도의 시발지로 대창정은 부두에서 하역관계로 큰 창고가 있는 데서 지어진 명칭이었다. 그러나 일본강점기에 이 일대는 주로 대창정이란 지명으로 대표되었다.

해방 후 부산역을 가진 중심부라는 뜻으로 중앙동으로 개명(改名)되었다. 1982년 5월 1일 법정동(法定洞)인 대교로(大橋路) 1,2,3가(街)가 중앙동 5,6,7가(街)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2. 동광동(東光洞)

왜관의 출입문은 수문(守門)을 비롯하여 수문(守門)과 북문(北門)이 있었는데, 수문(守門)의 통행이 가장 잦았다. 이 수문(守門)을 비롯한 재판옥지(裁判屋址), 동향사지(東向寺址) 등이 오늘날의 동광동에 해당된다.

특히 수문(守門)은 왜관과 동래로 통하는 공식 문으로 동래부와 부산진에서 파견하는 장교 각 1명과 통사 2명, 문지기 2명이 10일 교대로 근무하며 조석으로 문을 열고 닫으며, 동래부에서 발행하는 칩문(帖門)을 가진 자가 아니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수문(水門)은 옛날 동광초등학교 동편에 있었는데 왜관에서 사망한 일인들의 관구(棺柩)를 운반할 때만 사용했기 때문에 무상문(無常門)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북문은 대청동의 연혁에서와 같이 평상시에 는 늘 닫아두고 연향이 있을 때만 사용되었다. 동광동은 초량왜관 시대에 동관(東館)이 위치하였다.

동관은 바로 일본에서 오는 배가 정박하는 곳이며 왜관의 최고책임자인 관수(館守)의 집과 직접 거리가 이루어지는 개시대청(開市大廳)이 있어 일본조계가 되자 바로 본정(本町)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해방 후 일본식 지명의 폐기에 따라 동관이 있던 자리라는데 동관동으로 돌이켜져야 옳으나 발음의 어려움과 이웃 광복동과의 관계상 광복동 동쪽에 있는 점 등으로 동광동(東光洞)으로 바뀌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대청동(大廳洞)

초량왜관의 북쪽 담장 밖의 수문 너머에, 동래부에서 30리 거리에 연향대청(宴享大廳)이 위치하였다. 연향대청은 일본사신을 맞이하여 동래부사나 부산첨사가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연대청(宴大廳)이라 불렀다.

왜사(倭紗)가 부산에 상륙하면 먼저 숙배청(肅拜廳)에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대 왕의 전패(殿牌)에 소향배례(燒香拜禮)하고 하선연(下船宴)이 베풀어진다.

그리고, 하선연이 끝나면 다례의(茶禮儀)가 베풀어져 동래부사는 예복인 홍단령(紅團領)을 입고 왜사(倭使)는 노천단의(露天短衣)를 입어 서계(書契)를 접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연원을 가진 연향대청은 현재 광일초등학교 자리로 이 이름을 따서 일본강점기부터 대청정(大廳町)으로 불려오다 해방 후에도 일본식 지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대로 대청동(大廳洞)이 되었다.

1982년 법정동인 북병동(伏兵洞)이 대청동으로 바뀌었는데 이 북병동은 북병산(伏兵山)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북병산은 북병막(伏兵幕)이 설치되어 생긴 이름으로 북병막은 초량왜관안의 일본인들의 난동, 풍기문제, 밀무역을 하는 잠상(潛商)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왜관 밖의 동래로 통하는 산에 병사를 잠복시켜 놓았던 시설이다.

증정교린지에는 북병막이 동, 서, 남의 3개소였는데 영조(英祖) 15년(1739) 우리나라 여인이 일본 상인의 피임을 받아 석벽을 넘어 왜인과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에 동래부사 정형복(鄭亨復)이 3개의 북병막을 더 만들어 6개가 된 것이라 한다.

4. 보수동(寶水洞)

보수동은 보수천(寶水川)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보수천은 부산개항 직후부터 부른 이름이며 그 이전에는 법수천(法水川=法首川)이라고 불렀다.

감동어기전말등록(監童漁其顛末謄錄)에는 구초량의 법수천(法水川) 동암(東岩)밖이 곧 왜관수문(守門)의 옆이라 하였고 순영등록(巡營謄錄)에는 초량 법수천(法水川)이라 기록되고 있다.

법수(法水)라 함은 불법(不法)이란 뜻으로 불법은 중생의 번뇌를 씻어 정하게 한다하여 물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며 또는 불법으로 중생의 마음속의 때를 씻어주는 물이란 뜻이다.

법수천(法水川)이라는 이름이 어느 때부터 기원하였는지 그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법수천(法首川)은 법수천(法水川)에서 따온 말로 불교적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여 법주(法主), 법왕(法王)이란 뜻으로 운색된 표현으로 보인다.

근대 개항 후 법수천의 법(法)을 보(寶)로 고쳐 보수천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 뜻은 법수(法水)와 같은 것이다. 초량왜관시대에 왜관 안에는 우물이 있어 개항 당시에는 이것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개항 후 일본군함의 빈번한 출입과 거류 일본인의 증가로 급수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80년에 처음으로 보수천 상류로부터 대나무흙통(竹筩)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하였고, 그 후 1886년에는 나무통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하였다. 그러나 물은 날이 갈수록 모자라 1894년 보수천 상류에 물을 모으는 둑인 집수언(集水堰)을 만들고 자연여과 장치를 시공하였고 이와 아

올려 거류지 가까운 높은 곳에 대청동 배수지를 설치하였다.

이 상수도 시설은 비록 일본인들의 필요에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뒷날 부산 상수도의 기원이 되었다.

5. 부평동(富平洞)

부평동은 부민동(富民洞)과 같은 어원(語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보수천 하구일대는 갈대밭과 풀밭이어서 예로부터 샛디라고 불려왔다. 샛디는 초량(草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보수천 일대의 샛디는 해정리(海町里, 현재의 초량)까지도 샛디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부평동, 부민동에서 초량까지를 모두 초량이라고 불렀다.

너무 넓은 지대를 아무리 인가가 적었던 시절이라 할지라도 모두 초량이라고 부르기에는 불편하였던 까닭에 현재의 초량은 신초량(新草梁)이라 부르고 상대적으로 원래의 초량은 구초량(舊草梁)이라고 불려왔는데 이런 호칭은 개항당시까지도 그대로 존속하였다.

부평동의 부(富)는 부산(釜山)의 옛 지명인 부산(富山)과 같은 뜻에서 사용된 것이며 평(平)은 「터」란 뜻으로 샛디의 「디」와 통하는 자(字)로서 왜정시대에도 부평정(富平町)이라 불렀으며 해방 후에도 마찌(町)만 동(洞)으로 고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부평동은 일본강점기 제2호 시장형태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부평동시장이 있어 유명하다. 개항 후 우리의 시장형태는 통상 5일장이라는 것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물건을 매매·교환하는 것이고, 제2호 시장이란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한 장소에서 상행위(商行為)를 하는 것이었다.

1910년에 설립된 부평동시장은 1915년 부산부영(釜山府營)으로 옮겼으나 그 일대도 역시 부평동이였다. 이 시장의 이용권은 인근 70리 까지 세력이 미쳐 당시 조선내의 공설시장 중 최대의 것이었다.

이 부평동시장의 서편 위쪽은 백풍가(白風街)라 불렀다. 이것은 이곳을 내왕하는 통상문(通常門)이 있어 항상 백의(白衣)를 입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수 운집하여 왜인상품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백의인(白衣人)들의 집합소라고 하여 백풍가라 불렀다고 한다.

6. 광복동(光復洞)

중구 지역은 숙종(肅宗) 4년(1678)에 이설(移設)된 초량왜관(草梁倭館)이 고종 13년(1876)의 강화도 조약(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때까지 199년 동안이나 존속하였고, 그 이후 일본강점기에도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로 발전하였다.

초량왜관의 중요건물은 무엇보다도 조선 정부에서 지어준 동관(東館)과 서관(西館)이었는데, 이 건물들은 용두산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갈라져 있었으니 즉 동관은 광복동 동광동 쪽이고 서관은 신창동 쪽이었다. 동관에는 관수왜가(館守倭家), 재판왜가(裁判倭家), 개시대청(開市大廳) 등의 3대청이 있었으며, 서관에도 역시 동대청(東大廳), 중대청(中大廳), 서대청(西大廳)의 3대청이 있고, 각 대청에는 동헌(東軒), 서헌(西軒)과 2개의 행랑(行廊)이 있었다.

1910년 경술국치가(韓日合邦)후 초량왜관은 일본거류지(日本居留地)로 일본단독조계(日本單獨租界)가 설치되었다. 1914년 부산부 관할구역에 보면 광복동은 변천정(辨天町), 금평정(琴平町), 서정(西町), 행

정(幸町)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변천정은 초랑왜관 내의 용두산에 있었던 변재천신사(辯才天神社)에서 따온 이름이며 서정은 서관(西館)에서 따온 명칭 등으로 모두 일본식 지명으로 만들어졌다.

해방 후 동명개칭(洞名改稱)때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번창한 곳이어서 조국 광복(光復)을 기리는 뜻에 광복동이라 이름 지어졌다.

이밖에도 행정(幸町)은 창선동(昌善洞), 서정(西町)은 신창동(新昌洞)으로 고쳐졌다.

1956년 7월 25일 시 조례로 법정동(法定洞)인 창선동, 신창동을 행정동인 광복동에 병합시켰다.

이후 1977년과 1982년에 각각 동광동 일부가 광복동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른다.

7. 남포동(南浦洞)

초랑왜관이 일본 전관 거류지로 바뀌게 되자, 그들은 먼저 일본의 이권을 부산 주변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왜관 주변을 둘러싼 석벽을 맨 먼저 철거해 버렸다. 그리고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이권과 세력을 부평동, 부민동, 영도방면으로 확대시켜 갔고 마침내 영주동과의 사이에 있던 쌍산(雙山=雙岳)을 제거하여 거류지를 부산의 조선인 거류지와 연결시켰다.

왜관중심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르자 바다를 매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른바 북빈매축공사(北濱埋築工事)에 이은 남쪽 바닷가도 매축하기 시작하였다.

남항일대의 용두산 측 바닷가는 자갈돌이 많아 자갈치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일인들이 점령하고는 일시 남빈해수욕장(南濱海水浴場)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928년 공사시행 인가를 얻는 남빈매축은 일본인들의 부지확보 외에도 남항 일대를 극히 완전한 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옛날 시청에서 초장동까지의 모든 해안을 직선으로 매립하여 연안무역항 및 어업의 기지를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용두산 아래의 바닷가였던 지역과 매축된 곳을 일본강점기에는 남빈정(南濱町)이라 부르다 해방 후 영도의 남항동(南港洞)에 대(對)하여 남포동(南浦洞)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1977년 시 조례로 중앙동의 일부와 동광동 일부가 남포동에 편입되었으며 1982년에는 법정동(法定洞)인 대교동 3가와 동광동 1가를 남포동에 편입하였고 충무동의 1,2,3가는 남포동 4,5,6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8. 영주동(瀛州洞)

영주동의 옛 이름은 임소(任所)라 하였다. 이 임소(任所)의 유래는 개항 후 외교통상의 업무량이 늘어나 1890년(고종 27년)부터 이에 관한 사무처리의 전담 부서로 감리서가 설치되었다. 감리서(監理署)의 장(長)을 감리(監理) 또는 감령(監令)이라 불렀는데 그 지위는 첨사(僉使)보다 높았으며 그 관아(官衙) 시설이 현재의 봉래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감리서가 있었다는데서 관원이 근무하는 직소(職所)라는 데서 임소(任所)라고 불렀다.

그리고 영선고개(瀛仙峴)는 영선산에 있어 불린 이름이다. 영선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선(瀛仙)이 아니고 용선(容膳)이라는 설이며 다른 하나는 영선(營繕)이라는 설이다. 용선

(容膳)이라는 설은 이 산은 왜관안의 일본인과 물물교환(物物交換)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 고개의 밑에 동관문(東關門)이 있어, 쌍방(雙方)이 선물을 보낼 때에는 감리에게 허가를 받아 역관(譯官)이 이곳까지 와서 역관의 입회아래 용인(容認) 선물(膳物)한다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나 견강부회(牽強附會)한 느낌이 많다.

다른 한 설은 영선산이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어 양산(兩山) 또는 쌍악(雙岳)이라고 하는데 속중 때 두모포 왜관을 초량왜관으로 이설(移設)할 때, 초량왜관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재목이 이 고개를 통해 운반되고, 또 일부의 부채는 이 산에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영선산(營繕山)이라는 것이다. 초량왜관이 건립되고 우리나라의 관리인 훈도(訓導) 별차(別差)의 근무처가 바로 감리서 자리였다.

이들은 글귀를 아는 자들로 자기들이 거처하고 근무하는 일대를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영주(瀛州)라 이름하고 자기들은 선인(仙人)에 비유하여 영선산(瀛仙山)이라 하였다한다.